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능 출정식이 진행된 광주시 남구 설월여고에서 수험표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대박'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오늘 의대 증원 첫 수능

광주·전남 3만 787명 응시
N수생 증가 난이도 조절 변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이후 첫 수능이 14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N수생' 변수가 난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대입에서도 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변수가 많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등급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험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날 광주 38개교, 전남 45개교 시험장 등 전국에서 치러진다. 광주 수능 응시자는 1만6846명으로, 재학생 1만 1684명·졸업생 4420명·검정고시 등 742명 등이다. 전년 대비 757명(재학생 572명·졸업생 88명·검정고시 등 97명)이 늘었다. 전남 응시자는 1만 3941명으로, 전년 대비 478명(재학생 458명·졸업생 4명·검정고시 등 16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응시를 지원한 수험생은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에 달한다. 재학생은 34만777명(65.2%)으로 1만4131명 늘었다. 졸업생은 그보다 적은 2042명 증가한 16만1784명(31%)으로 집계됐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씨: 오전 구름많음 10도/오후:한때 비 20도

챙기세요

신분증·수험표·도시락·아날로그 시계

두고가세요

휴대전화·전자사전·스마트 워치
·스마트패드 등 모든 전자기기

도착하세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



졸업생 규모로만 보면 2004학년도(18만4317명) 수능 이후 가장 많다. 졸업생이 수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상위권 N수생이 몰린 탓이란 분석이다.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1년 전보다 1497명 증가한 4610명이다. 호남권 대학에서는 전남대학교 의대 163명, 조선대학교 150명, 전북대학교 171명, 원광대학교 150명 등이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N수생 증가에 따른 난이도가 쏠린다. 출제 당국인 평가원 입장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로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지키면서도 N수생 변수를 고려해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원이 N수생을 고려해 출제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난이도는 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된 올해 6월 모의 평가보다 쉽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개 대체적인 관측이다.

광주진학부장 협의회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작년처럼 킬러문항이 없어도 매우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는 전망 등을 내놓고 있다.

광주진학부장 협의회는 "킬러문항 배제 이후 더 정교하고 복잡해진 선택지(매력적인 오답)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 진학담당 정훈탁 장학관은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다양한 입시 변수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등급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난 뒤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잡념을 버리고 수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립니다



예향 창간호, 복간호, 300호, 40주년 기념호(왼쪽부터)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전시회

11월 17일~21일 전일빌딩245 8층 VOC라운지

광주일보의 자매지인 '예향'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아카이브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예향' 표지를 장식했던 화가들의 작품과 사진을 통해 광주가 한국의 '예향(藝鄕)'을 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여정을 살펴보고 '예향'의 대표 콘텐츠인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미로)'에 소개됐던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이미지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 주제: '40년의 여정-함께 걸어갈 길'
- 일시: 2024년 11월 17일(일)~21일(목)
- 장소: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8층 VOC라운지

光州日報社

신해양 시대 선도...전남관광개발 포럼

오늘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전남이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활용해 전세계 여행객의 발길을 이어지는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전남관광개발 포럼'이 (사)한국관광연구원 후원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 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남도와 22개 시·군 관광업무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전남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전남 22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과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활용한 '관광 랜드마크 전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송재호 국회의원사무위원장은 '해양관광의 체계적 추세와 인사이트, 전남 다도해의 해양관광

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기초 연설에 나선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는 '지역 간 관광협력 성공 사례와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와 전남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는다.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주제 발표 뒤 진행된다.

박창규 (사)한국관광연구원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남 신해양 문화관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원섭 교수, 박경열 실장,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